

Han Lee

Messages toward a Better World

Seoul, 2022

이한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전언들

2022.4.6-11

G&J Gallery(인사아트센터 3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G&J Gallery (Insa Art Center Floor 3)

Jongno-gu Insadong-gil 41-1, Seoul

02-725-0040

축사

한예중 미술이론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한범 군이 이번에 다시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다. 작품작을 살펴보면 100호 크기의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다. 얼핏 보면 요사이 유행하는 웹툰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물을 보면 많이 달라서 화면의 크기와 붓질의 필력에서 시원한 눈맛을 느낄 수 있다. 마치 음식을 촬영한 사진을 보는 것과 진짜 음식을 맛보는 것의 차이와도 같다.

이한범은 기독교 건축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도 했는데, 밝고 선명한 색채와 질고 분명한 윤곽선으로 묘사한 형상은 이러한 미술사적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창작에 자양분으로 삼은 결과다. 의인화된 동물이나 삼국지의 인물은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팝아트와 비슷한 구석도 있어서 마치 트럼프 카드에 등장하는 잭, 퀸, 킹, 조커와도 같이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환경의 파괴, 역병의 유행, 무능한 정치 등을 외면하지 않고 날선 비판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다. 눈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지적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이한범 군의 그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이번 봄날은 더욱 화창하다!

조인수(한예중 미술이론과 학과장)

Foreword

I welcomed the pleasant tidings that Han Lee, who completed the coursework requirement for an M.A. degree at the Art Theory Departmen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s holding another one-person exhibition. Looking at the works to be exhibited, he painted using acrylic on 130x162cm canvases. They look similar to recently trending webtoons at a glance, but the real objects are very different, so that one can feel a gratifying visual flavor in the composition sizes and power of the brush strokes. It i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viewing a photograph of food and tasting actual food.

Han Lee also researched stained glass of Christian architecture in depth, and the forms depicted with clear, bright colors and dark, distinct contours is the result of holding on to such an art historical interest and taking it as nutriment for his art-making. The personified animals or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characters have an aspect similar to pop art, which actively appropriates popular culture, familiarly drawing on like the Jack, Queen, King, and Joker on playing cards. However, the artist does not avoid environmental destruction, a pandemic, and incompetent politics, etc. and assertively includes edgy criticism. The chance to meet Han Lee's paintings, which keep us from easing our intellectual tension while pleasing the eye, in one setting makes this spring even brighter!

Insoo Cho,
chair of the Department of Art Theo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이한범 작가,
우리 모두 더 나아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진솔한 전언들
민병직(독립기획)**

1.

각양각색의 색다른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먼 세상의 군중 속으로 들어 와 있는 것만 같다. 의외의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여 왠지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적어도 어느 현대미술 전시들처럼 어떤 난해함이나 중압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유로 망설임 없이 이들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게 된다. 황소, 원숭이, 사자, 앵무새, 독소, 거북이, 재규어, 독수리, 코뿔소, 호랑이, 여우, 치타, 나무늘보 등 갖가지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들이 눈길을 끄는가 하면 피터 팬, 돈키호테, 로빈 후드, 피노키오, 배트맨, 조커, 사천왕상, 달마대사, 주유, 제갈량은 물론 간간히 낯익은 현실 정치인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동서고금, 대중매체 상의 온갖 캐릭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좀 더 눈여겨보면 야구, 하키 등의 운동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보이지만 이들조차도 다른 캐릭터들처럼 코로나와 기후위기 관련한 이슈, 현실적인 현안들에 대한 발언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하고 있다는 면에서 무언가 수다스러운 말들을 걸어오는 것만 같다. 시각적으로도 다채롭지만 청각적으로도 무언가를 웅성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텍스트들조차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만화처럼 손쉬운 볼거리,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작업들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들 대체로운 캐릭터들을 시원시원하고 경쾌한 색감과 필치들로 표현하고 있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가시적으로 유쾌한 느낌들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번 전시의 열개는 대체로 이러한 풍경이 아닐까 싶다. 생경할 수도 있지만 친숙한 모습들이라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이미지들이 어떤 말들을 걸어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작가의 작업은 요즘 시대의 현대미술 전시의 그것들처럼 낯선 형상, 이미지들이 전하는 좀처럼 알 수 없는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호기심조차 생겨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체적으로 친근한 형상들이 걸어오는 이야기들이라는 면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에 상관없이, 이를테면 팝아트처럼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작업들이기에 오히려 그 속내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신기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알 수 없는 이미지와 의미들로 쉽게 다가서기 어렵게 만들곤 하는, (동시대) 미술과는 다른 그 이유들 말이다. 작가 역시 미술을 전공했고 관련 담론들에 익숙한 충분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작업의 편이한 면모들이 단지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서 기획된 것들, 그래서 혹시 작가 작업의 핵심적인 기조이자 방향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작가의 해명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다행히도 작가의 블로그, '작가성명'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blog.naver.com/hanpumilee) 예상했던 바대로 작가 역시 주제와 의도된 메시지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내용 또한 난해하기만 한 현대미술에 대해 일정한 평가와 의의를 제기하면서 이와는 다른 길을 의식적으로 걷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성명(聲明)인 셈인데, 이 밖에도 작가 작업을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몇 단서들도 제공하여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어떤 작가의 작업을 온전히 이해함에 있어 (몇몇 예외는 있었지만) 그 내막, 속사정이라 할 수 있는 맥락과 동인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특이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작가의 경우 작업 활동 못지않게 미술 관련한 번역을 주요 업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번역의 핵심은 서로 다른 언어, 내용들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소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각별한 경험들이 작가의 작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면에서 작가의 작업 역시 가시적으로 전해진 작품과 그 내용, 곧 작가가 주장하는 의도, 의미들이 가급적 일치하도록 배려했던 것 같다. 스스로의 생각들을 작품으로 충실히 번역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좀 더 편하게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작업 형식, 스타일을 고민했던 것 같고 전통적인 회화와는 다소 다른, 캐릭터 중심의 일러스트적인 느낌의 작업들을 펼쳐오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묵탄 드로잉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아크릴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분명 파인아트이며 그렇기에 오히려 작업의 팝(아트)적인 면모들이라 해야 할 것이다. 갖가지 비의들로 가득한, 그래서 몇몇 이들만의 제한된 미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술들 말이다. 이는 비단 그림의 스타일과 같은 형식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데 작업의 기본적인 지향과 바탕이자 작가로서의 관점, 태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작가로서의 충실한 의미의 전달과 보는 이들을 위한 솔직한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작업 자체가 세상을 향한 진실한 의미, 혹은 희망을 향한 전언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2.

이번 전시도 수다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갖가지 캐릭터들이 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하지만 차분하게 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후위기와 코로나 관련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작가 역시도 우리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느낌들이기도 하다. 사회적 현실의 모순, 부조리를 들춰내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가의 솔직한 생각들, 조언들을 담아내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세상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 비판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지기 위한 진실한 마음들, 생각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지금 시대의 가장 첨예한 현안들이자 일상적인 현실들이기도 한 코로나, 기후위기에 대한 작가의 의견들을 작품들로 담아내려 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식으로든 외면할 수 없는 지금, 여기 우리의 중차대하면서도 평범한 삶에 관한 문제들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날 서린 정치적 구호들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웬만하면 음식낭비를 줄이고 절전하고 재활용하자는, 중요하지만 소소해 보일 수도 있는 메시지들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이들 현안과 관련한 작가의 최근의 생각들을 가감 없이 전하기도 한다.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감축을 위해 화석 에너지를 최대한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었지만 작가는 마이클 쉐러버거의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소신 있게 발언하는 식이다. 이러한 면모들이나 작품마다 날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작가의 작업은 독서경험을 포함하여 평소의 생각들을 정리, 기록하여 이를 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지 않나 싶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공공의 사항들을

다시 환기시키고 이를 함께 숙지하자는 차원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의 작업에 등장하는 온갖 동물들도 황소를 제외하면 모두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이라 하는데 이 또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고 보면 작가의 작업에서 선택된 몇몇 이색적일 수도 있는 도상, 이미지들도 일정한 맥락과 이유에서 비롯된 것들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대표적 정치인들이 사천왕상들과 함께 방역을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치인의 모습들이야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할 테지만 사천왕상의 경우 외의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사천왕상이 여러 이상적인 덕목을 갖춰 정의롭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로 코로나 방역을 정치인들과 함께 거드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좋아서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천왕상은 서양의 수퍼 히어로처럼 동양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함과 화려함의 윤리적, 미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도상이었기에 작가가 이따금 표현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작가는 12간지의 동물들도 즐겨 그리곤 하는데 이 역시 **우리에게** 복과 기운을 주는 존재들이기에 선택된 것들이다. 모두 상상의 존재들이긴 하지만 의인화된 캐릭터들이라는 면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자리하는 멀고 먼 대상들이 아닌 전승된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며 무엇보다도 더 나은 능력과 미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를 위해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하게 의지하고 본받고 따라할 만한 그런 존재들로 표현된 것이다. 자세히 보면 표정들에서 세월의 깊이마저 느껴지는데 **한날** 미물들로서가 아니라 나름의 존엄성을 가진 귀한 존재들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다시 말해 동물들을 포함하여 상상의 존재들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간혹 작가의 작업을 우리 시대의 우의(寓意, 알레고리)처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 이외의 대상들에 우리의 생활감정을 부여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삶의 어떤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도 분명 얼마간 자리하지만 그 밖의 것들, 곧 다양한 현실의 대상들도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대당되긴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위해 그것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가리지 않고, 하지만 가끔적이면 문화적으로 친숙한 것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가의 생각과 **전언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들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는 방식에서 일부 우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의, 곧 알레고리가 결국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라는 점에서 작가의 작업은 일차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의인화되거나 대중매체상의 캐릭터들을 빌려 이차적인 의미라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혹은 우리 모두의 행복에 관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작업들이 표면적인 이미지를 통해 그 이면의 의미들을 전하고 있다는 면에서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작가의 세상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행복한 삶에 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상들이라도 작업의 소재와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다만 진실한 의미소통이 가능한 한에서, 그 대상이나 내용들을 가리지 않고 선택,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

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방향이나 원칙 없이 무작정 자유분방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다소 고전적이고 이상적인 면모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진선미의 가치, 곧 진실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덕목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개념적 전통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작품이 작가의 생각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의 의미가 세상과 삶을 향한 미덕들을 향해야 한다는 작가적 지론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작가 블로그의 어느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름다움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도덕적 이상들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정렬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이라는 작가의 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보자면 이러한 미술의 지향과 가치가 때로는 낡고 식상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는 미술, 혹은 예술의 오래된 하지만, 본원적인 의미와 가치이기도 할 것이다. 복잡다단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향해 동시대 예술이 얼마간 어쩔 수 없이 난해하고 불가해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술은 본디 우리의 삶을 위해 즐거움을 주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자 수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알고 있었기에 작가는 그것이 비록 시대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설령 오래된 것들로 보일지라도 소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분명한 예술관을 피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병행하고 있는 작가의 작업 스타일도 다시금 생각해볼게 된다. 이미지와 텍스트, 그림과 글은 모두 작가의 생각들을 용이하게 담아내기 위한 대중적인 형식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고(書畫同原), 둘 다 공히, 외부 세계를 향한 의미 표현들이라는 면에서 이를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시키지 않았나 싶다. 이런 점들 이외에도 글과 그림이 본래 세상을 향한 진정어린 바람과 소망을 위한 매체인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서로서로 보완하면서 작가의 생각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현실의 안타까움을 애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마음 편해지고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지향들을 부단히 담아내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미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의 상서로운 지복과 기운을 위해 자리하는 부(符)의 미덕마저 담고 있기에 더욱더 각별하고 소중한 가치로 자리하는 미술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상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모두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작업을 말이다. 이런 면에서 현대미술의 개념적인 발전 속에서 혹 잊고 있었던 예술의 오래된, 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 본래적인 의미들을 작가가 부지불식간에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도 싶은데, 어쩌면 생업을 위해 수없이 많은 현대미술 관련한 이미지, 텍스트들을 번역해왔기에 더욱더 이러한 예술의 본원적인 의미와 가치를 소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를 일정한 경험상의 문제로 한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작가로서 예술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진솔함과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교감에 두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세상과 삶을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때문이었을까, '그림을 그릴 것이라면 무언가 잘해보자는 메시지를 담자는' 작가의 말도 현대미술치고는 너무 직접적이고 단언적인 말들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궁이 가게 된다. 결국은 지극히 온당한 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작가는 작품으로 무언가 더 잘해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미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번 전시의 밝게 미소지우며 두 손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호랑이를 그런 작품처럼, 혹은 작가의 진솔한 전언처럼, 우리 모두, 올 임인년, 호랑이 해, 'Let's enjoy life! Happy 2022'일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본다.

Han Lee,
Honest World-ward Messages, for All of Us to Become Better
Min Byung Jic, independent curator

1.

Filled with unique characters of all shapes and colors, it makes the viewer feel like they have joined a crowd in another world. Although an unexpected sense of unfamiliarity is felt, they are also familiar entities if one views them closely, and so it even occurs perhaps the viewer is welcoming this for some reason, and it at least appears distanced from the certain abstruseness or pressure of most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For this reason, the viewer is led to consider these characters, one by one, without hesitation. Attracting attention are all kinds of personified animal characters, a bull, monkey, lion, parrot, bison, **turtles**, jaguar, tiger, fox, cheetah, and sloth; and one confirms that spread out like a panorama are all kinds of characters indeed of the East and West, both ancient and modern as well as from mass media, naturally including Peter Pan, Don Quixote, Robin Hood, Pinocchio, Batman, the Joker, the Four Heavenly King Figures, Bodhidharma, Zhou Yu, Zhuge Liang, and even including the occasional familiar real-world politician. Upon slightly more careful observation, one will see a group engaged in the athletic contests of baseball and hockey, but even they appear to be saying some chatterly things to us in that **they** accompany messages holding speech about issues and real problems related to the coronavirus and climate crisis. The works are visually colorful, but also seem to be making noise about something auditorily, too. However, they approach as works providing handy things to see and read in that even such images and texts can be grasped without much difficulty. Also, these colorful characters are represented through lively and cheerful colors and brush strokes, transmitting visibly enjoyable sensibilities regardless of the message that is being communicated.

This kind of sight conceivably constitutes this exhibition's framework. As they are perhaps common yet familiar images, the viewer partly feels at ease while some curiosity is added about what words these images have for us. As such, the artist's works do not appear to imply obscure meanings unfamiliar forms and images deliver, like those of the current era's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instead holding certain stories through images we already know, thus even eliciting curiosity. Above all else, they appear to be works anyone can comfortably enjoy regardless of visual literacy, in a sense like pop art, in that they are **stories** generally familiar forms tell us. However, while this may be an ironic statement, because they are works that approach without difficulty, one in fact becomes somewhat curious about the internal conditions. The reasons for being different from (contemporary) art that may be mysterious but makes it hard to readily approach, with generally inscrutable images and meanings. Part of my curiosity may have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 artist, too, majored in art and has sufficient experience of familiarity with related discourses. One wonders whether the works' such handy aspects are things that were planned with a certain intention, and not simply results, thus forming the core theme and directionality of the artist's process. An explanation straight from the artist would be required regarding this, and fortunately one can check an artist statement on his blog (blog.naver.com/hanpumlee). As predicted, the artist offers a certain assessment and dissent regarding contemporary art that not only heavily emphasizes themes and **intended** messages, but is also boundlessly abstruse in content, as he reveals clear views regarding why he is consciously taking a different path. It is indeed a manifesto, and it serves a useful role by also providing some clues aiding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the artist's process. As such, a comprehension of the contexts and causes that could be called the inner workings and inside story seem rather important for wholly understanding an artist's works (while there are a few exceptions). What warrants consideration as a peculiarity here is that the artist does art-related translating as a main vocation rivalling **his** art-making activity. The essence of translation is to faithfully and accurately communicate different languages and contents. Such special experiences perhaps also influenced the artist's process to an extent, and it appears, in this regard, he took care to make the visibly conveyed work and its contents, i.e., the intentions and meanings he asserts, coincide as much as possible in his art-making as well. He tried to faithfully translate his thoughts into artworks. It appears he, for such a reason, struggled for artwork forms and a style that could allow communication and the sharing of sympathies with **many** people, and has been making character-centered works of illustration-like sensibilities differing from traditional painting. However, this is certainly fine art in that he painted in acrylic with charcoal drawing as the base, and therefore it seems one would rather have to call them the pop (art) like aspects of his works. This is about art many people can easily approach and enjoy, and not art that is filled with all kinds of covert meanings and is thus limited to the few. This is not limited to the formal dimension of the paintings' style, because it is connected to the process's fundamental direction and **background**, as well as the artist's perspective and attitude. Not only is there the artist's faithful conveyance of meaning and straightforward communication for the viewers, the process itself includes world-ward truthful significance or messages toward hope.

2.

This exhibition is also full of messages delivered by all kinds of characters, to the extent of feeling chatter, but if one examines this calmly they will know that much of the works are mostly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coronavirus. The artist, too, is interested in our era's real issues. However, the works are also of sensibilities somewhat different in texture from the chain of works including such contents. It is because, rather than placing an emphasis on exposing social reality's ironies and absurdities, they are closer to including

the artist's frank thoughts and advice for a better world. They are conveying sincere thoughts and feelings for the world to change for the better, rather than sharp issue-raising and criticism regarding the world's reality. This may be why the artist naturally tried to include his opinions regarding COVID and the climate crisis, which are the present era's most acute issues and everyday realities, in his works. They are our crucial yet ordinary challenges concerning life here and now, which cannot be ignored in any way. However, the works appear distanced from edgy political slogans regarding this as well. It is because they are messages that are important but can seem trivial, asking us all to reduce food waste, conserve electricity, and recycle if possible to achieve zero carbon emissions, conveying talk we can ably practice in daily life. They also plainly deliver the artist's recent thoughts related to these issues in some cases. While the argument to replace fossil energy with nuclear energy as much as possible for carbon reduction for the climate crisis can be one that leaves room for debate, depending on one's political position, the artist's manner is of agreeing with Michael Shellenberger's book *Apocalypse Never* and speaking with conviction regarding this. If one considers such aspects or the fact each artwork is dated, the artist's works appear close to organizing and recording his usual thoughts, including reading experiences, and expressing them in a relaxed and candid manner. They are of the spirit of awakening public items we must all know with alertness and asking that we collectively be well-acquainted with these. In this vein, the various animals appearing in the artist's works are all said to be endangered, with the exception of the bull, and this also has meaning in its own way. Come to think of it, the few possibly unusual icons and images chosen in his works also originate from a certain context and reason.

One can see representative politicians striving to contain infectious disease alongside the Four Heavenly King Figures, and while the appearances of politicians can be accounted for as real aspects of ourselves, the Four Heavenly King Figures will engender feelings of surprise. However, the reason is simpler than one would think, and it is because the Four Heavenly King Figures have several ideal virtues and are just, and for this reason were suitable for representing in the appearance of helping politicians with coronavirus disinfection. In addition, the Four Heavenly King Figures are icons holding the ethical and aesthetic values of our Eastern traditional culture's excellence and splendor, like the West's superheroes, and are therefore subject matter the artist occasionally depicts. In a similar context, the artist also enjoys representing the 12 Chinese zodiac animals, and these were also selected for being entities giving us blessings and good fortune. Although they are all imaginary entities, in being personified characters, they are ones we can easily imagine, as opposed to being distant and faraway subjects abiding in a world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s, since we can routinely encounter them in traditional culture, and, above all else, they are represented as entities we could comfortably depend on, learn from, and emulate in that they not only have superior abilities and virtues, but they are also exhibiting these

values to benefit us. Upon close inspection, even depth of time is felt in the expressions, and one will be able to know that they have been depicted as noble entities with their own dignity, and not as mere trifles.

In this context, in other words, in that they include mythical beings, including animals, one could occasionally think of the artist's works as our era's allegories. That is, stories conveying certain life lessons by assigning our life emotions to subjects other than humans and making them behave in the same way. However, while such an aspect is certainly present to an extent, it appears it would hardly correspond directly in that the works do not ignore the other things, i.e., various subjects of reality. In fact, it appears the art expresses the artist's thoughts and messages for a better world without discriminating **between** the realistic or unrealistic, but through the culturally familiar where possible, for stories that are not unrelated to our real lives. Only there seems to be a partially allegorical aspect in the method of dealing with these contents, and, in that allegories are ultimately saying something else, the artist's works could be viewed as borrowing personified or mass media characters, which belong to the primary significance, to make suggestions related to our reality or the happiness of us all, which can be called the secondary significance. However, this does not seem to b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in that many of the works **are** conveying inner meanings through superficial images, and one might actually have to view it as any subject having been eligible to be the works' subject matter and contents if it could help deliver the artist's honest thoughts about the world and opinions concerning happy living. The artist is literally freely choosing and representing subjects and contents without discrimination, only insofar as truthful communication of meaning is possible.

3.

However, this is not to say he appears extemporaneously freewheeling without any direction or principles whatsoever. Somewhat classical and ideal aspects are also visible in this regard, and it is because the works aim for such virtues as the values of truth, good and beauty, i.e., the truthful, good, and beautiful, so to speak. This is not simply for an old conceptual tradition or a certain ideology, and it appears more related to how the artworks must be able to accurately translate the artist's thoughts, as mentioned above, and the cherished artistic opinion that art's meaning must face toward virtues toward the **world** and life. One can confirm this in the artist's words "it is because people pursue pleasure through beauty, and ethical ideals are sufficiently worth encouraging for all of society as well," which can be found in a passage on the artist's blog. Art's such aims and values probably can at times draw on as a worn and stale significance in a way. However, viewed the other way around, these will also be art's, or the arts', old but original significance and values. It is because, while it is also true that contemporary art somewhat inevitably must display an abstruse and inscrutable side toward a convoluted and ir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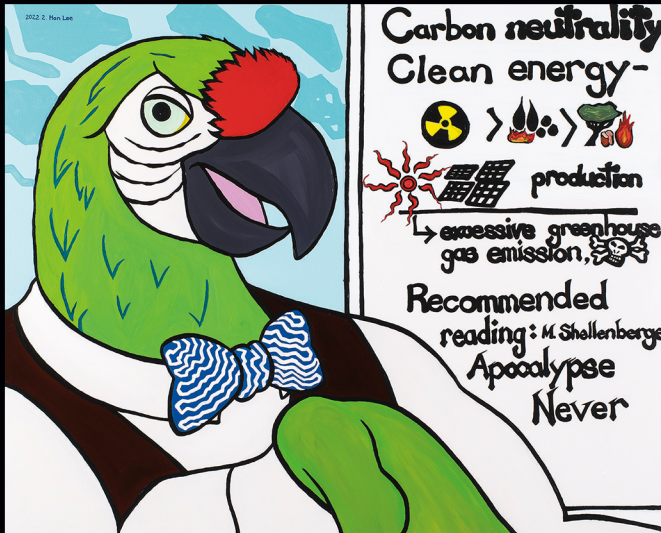
world, art must primarily be an act and means to give enjoyment for our lives and allow them to be happier and more beautiful. Perhaps the artist expressed his clear view of art with conviction even if it may appear unrelated to the flow of the times, or even aged, since he knew these circumstances of the occasion well. Meanwhile, I come to reconsider the artist's art-making style of combining images and text. While images and text, pictures and words, would all also be a popular format for conveniently holding the artist's thoughts, he perhaps made them naturally coexist without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ey **fundamentally** share one root and are both legitimate expressions of meaning directed at the outside world. Other than this, it seems necessary to also consider the fact that writing and pictures are inherently mediums for heartfelt hopes and wishes toward the world. They communicate the artist's thoughts and, further, messages of hope regarding the world while thus complimenting each other. The constant effort to include contents and directions that, given the choice, are reassuring and could better the world, instead of taking pains to deliver social reality's regrettableness, is likely in the same vein. He may **have** intentionally chosen art that exists as even more special and cherished value since it even includes the virtue of symbols that, while not quite superstitious, exist for the auspicious beatitudes and fortune of us all. Works through which not just the world, but we ourselves could also have improved moods, which may in turn make the lives of us all even happier. In this regard, the artist may also have unconsciously realized art's old but not easily pretermitted, original meanings we may have been forgetting about amidst contemporary art's conceptual development, and it may be because he has been **translating** countless images and texts related to contemporary art for his livelihood that he further cherishingly accepted art's such original significance and value. However, it appears difficult to limit this to a matter of a certain experience, and it seems more valid that, as an artist, he assigned art's proper significance and role to communication and sympathy based on truthfulness and honesty, establishing them through this as being for a better, more beautiful world and life. Maybe due to such thoughts, the artist's statement of "if I was going to paint pictures, I wanted to include the message that we should try to **do well**" also seemed perhaps too direct and asseverative for contemporary art, but now I can naturally assent. It is because it is ultimately necessarily an exceedingly proper statement. In the end, the artist is making art through which he can do more good, and we can all become better. In this way, like this exhibition's artwork depicting a tiger welcoming viewers with both arms and a bright smile, or like the artist's truthful message, I share in on the hope that it can be "Let's enjoy life! Happy 2022" for all of us this year, in the year of the ti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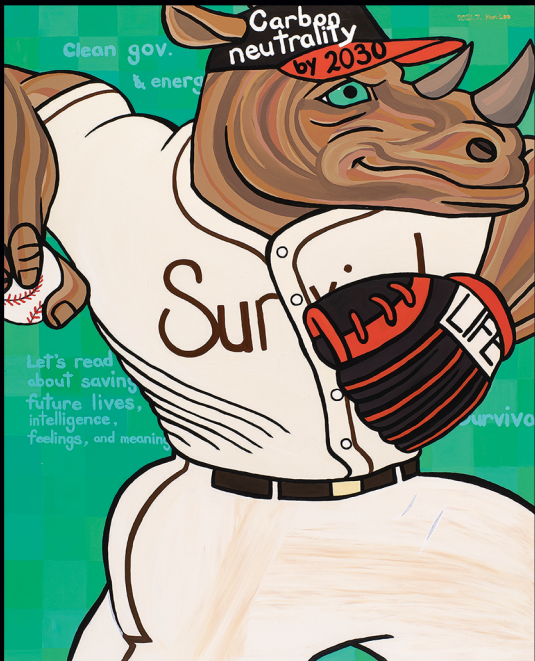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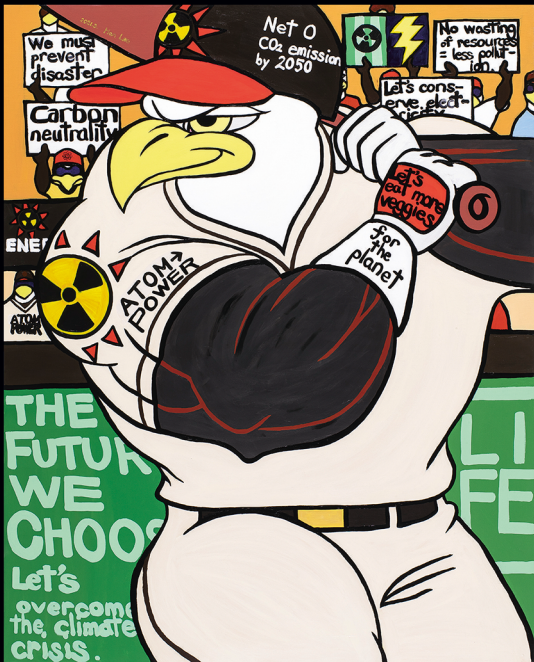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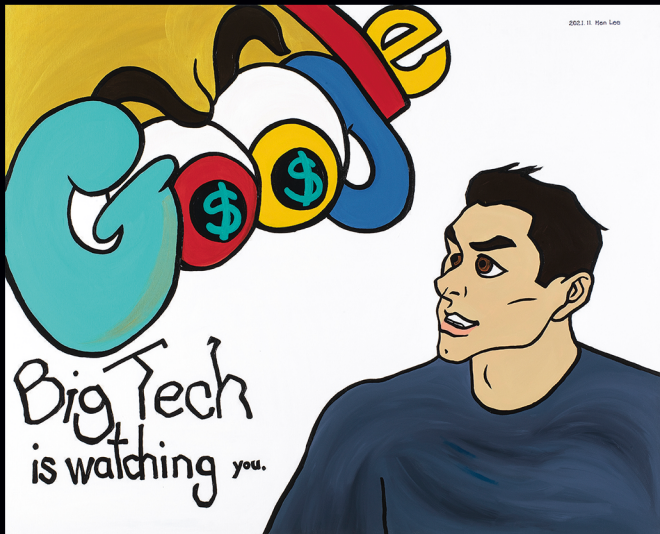




2021.7. Ha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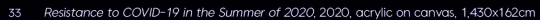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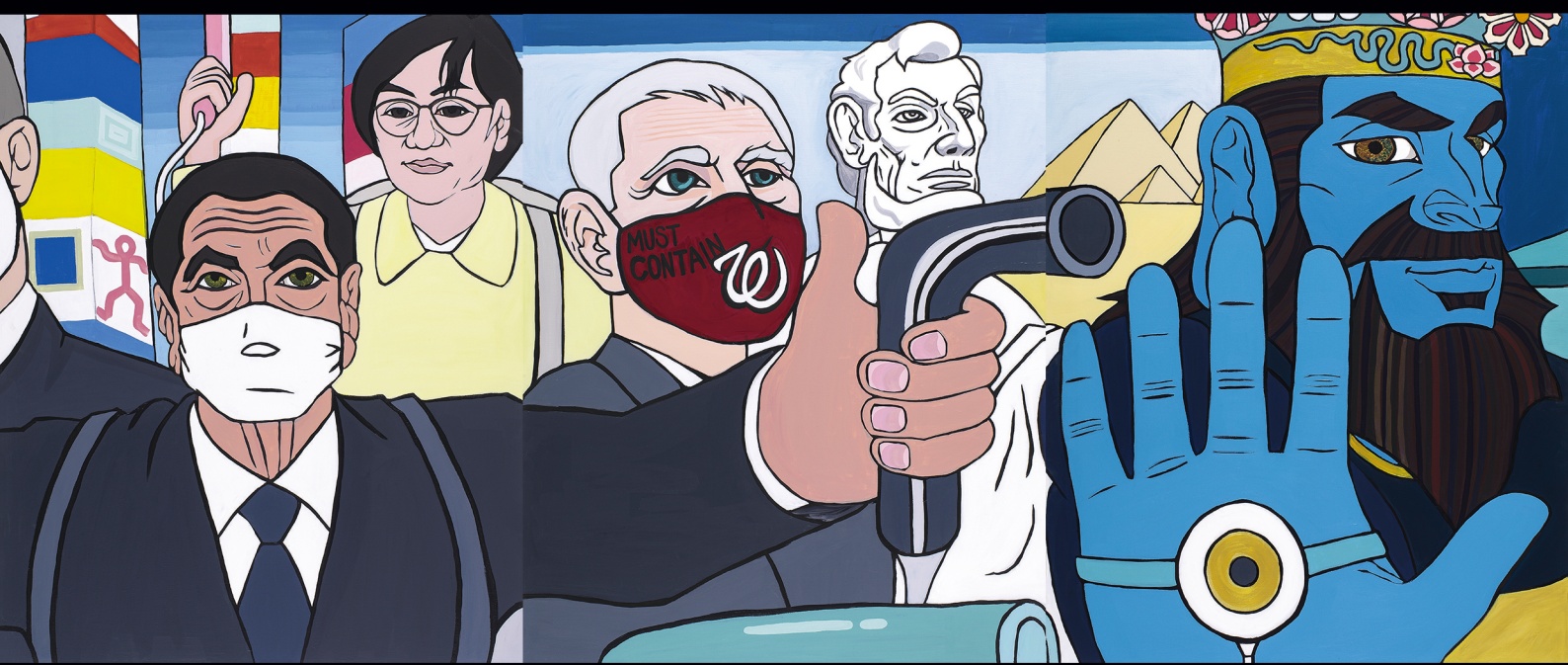




Resistance to COVID-19 in the Summer of 2020 (detail)



Resistance to COVID-19 in the Summer of 2020 (detail)



Resistance to COVID-19 in the Summer of 2020 (detail)



Resistance to COVID-19 in the Summer of 2020 (detail)



Office of the
President-elect

2022.2. Han Lee



WORLD
FEDERAL
GOVERNMENT



Global Inquirer Feb. 17, 2022
Patriotic Millionaires:
"Taxatotation at LAST!"
Economist recommends
companies be staff ^{owned} & run
Developing nations eager
for more dam construction

President-elect
ROBIN HOOD



2022. I. Non Lee



이한범

www.hanlee.kr

학력

2009, B.A., art & art history, fine art concentration, DePaul University in Chicago

2013, 한예종 미술이론과 전문사(석사, 수료)

2013, 2014, Harvard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여름 학기(수업 이수)

개인전

2022.4, <이한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전언들>, G&J Gallery, 서울

2020.1, <Han Lee: A Retrospective>, 일곡갤러리, 광주

2015.3, <Impressions of Beijing>, 99미술관, 베이징

2012.10, <Where Text, Images and Humans Mingle>, 한예종 미술이론과 갤러리, 서울

2012.2, <12지로 본 100인 100색>, 일곡갤러리, 광주

2008.7, <Han Lee>, 서광주우체국갤러리, 광주

1993, Lindbergh-Schweitzer Elementary School, San Diego

단체전

2021.11.18-26, <삶의 가치>, 무등갤러리/미로센터, 광주

2021.10, <광주 Social Art Festival 전시>, 미로센터, 광주

2021, <2021 한국미술진흥원 특별기획전>, 한국미술진흥원 웹 사이트

2017.1-2, <꼬기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6.1-2, <끼쁨+행복×사랑÷>,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5.1-3, <Dialogue>, 99미술관, 베이징

2011.8-9, <Young Artists>,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나주

2009.8, <기영숙, 이한범 2인전>, 일곡갤러리, 광주

2009.6, "DePaul University Senior Thesis Exhibition," Fulton St. Collective Gallery, Chicago

2008.5-6, <일송일매오류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2008.7, <기영숙, 이한범, 이두범>, 일곡갤러리, 광주

레지던시

2021.6-8, 미로창작플랫폼, 광주

2014.12-2015.3, 99미술관, 베이징

2011.10, Beijing Studio Center, 베이징

출판물

2019, "The Stained Glass of Choi Young-Shim," Stained Glass, Stained Glass Association of America, Winter 2018/19

2009, 『한범이의 할로윈』, 이한범 그림/ 기영숙 글·그림, 대동문화

방송 출연

2016.1.4, KBC <생방송 투데이> 청년작가 프리젠테이션, 광주

1993, KNSD News "Bikes for Kids"에 그림 소개 포함, San Diego

Education

2009, B.A., art & art history, fine art concentration, DePaul University in Chicago.
2013, M.A. candidacy, art theo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2013, 2014, summer school, Harvard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Solo Exhibitions

2022.4, *Messages for a Better World*, G&J Gallery, Seoul.
2020.1, *Han Lee: A Retrospective*, Ilgok Gallery, Gwangju.
2015.3, *Impressions of Beijing*, 99 Art Museum, Beijing.
2012.10, *Where Text, Images and Humans Mingle*, KNUA Art Theory Dept. Gallery, Seoul.
2012.2, *Diversity as Viewed Via the 12 Zodiac Animals*, Ilgok Gallery, Gwangju.
2008.7, *Han Lee*, Seo-Gwangju Korea Post Gallery, Gwangju.
1993, Lindbergh-Schweitzer Elementary School.

Group Exhibitions

2021.11, *The Value of Life*, Mudeung Gallery / Miro Center, Gwangju.
2021.10, *Gwangju Social Art Festival Exhibition*, Miro Center, Gwangju.
2021, *2021 Korea Art Promotion Agency Special Exhibition*, KAPA web site.
2017.1-2, *Cock-a-doodle-doo*,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6.1-2, *Joy + Happiness × Love ÷*,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5.1-3, *Dialogue*, 99 Art Museum, Beijing.
2011.8-9, *Young Artists*, Dongshin University Culture Museum, Naju.
2009.8, *Young Sook Kee & Han Lee*, Ilgok Gallery, Gwangju.
2009.6, *DePaul University Senior Thesis Exhibition*, Fulton St. Collective Gallery, Chicago.
2008.5-6, *A Pine, an Apricot, & Five Willows*, Namdo Folk Foods Museum, Gwangju.
2008.7, *Young Sook Kee, Han Lee, & Michael Lee*, Ilgok Gallery, Gwangju.

Residencies

2021.6-8, Miro Creative Platform, Gwangju.
2014.12-2015.3, 99 Art Museum, Beijing.
2011.10, Beijing Studio Center, Beijing.

Publications

2019, "The Stained Glass of Choi Young-Shim," *Stained Glass*, Stained Glass Association of America, Winter 2018/19.
2009, Young-Sook Kee, *Han's Halloween*, illustrations, Daedong Culture Foundation.

TV Appearances

2016.1.4, KBC *Live Broadcast Today* young artist presentation, Gwangju.
1993, KNSD News, introduction of art included in "Bikes for Kids," San Diego.

작품 목록 Artwork Index

5. Eco Bull(에코 황소), 지구를 구합시다
15. Reading & Thinking Monkey(읽고 생각하는 원숭이), 당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녹색 투표를 하고 또 합시다, 인류를 기후 위기로부터 구하는 방법
16. Red-fan Parrot(붉은 부채 앵무새), #탄소_중립 및 #생태_다양성을 위한, 열대 삼림 파괴 방지를 위한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17. Prophet Tamarin(예언자 타마린), 추진, I. 기후 재앙에 기여하지 말라. II. 민주주의의 약화에 기여하지 말라. III. 절대로 세계 평화를 손상시키지 말라.
18. Super Lion(슈퍼 사자)
19. Professor Macaw(교수 마코앵무), 탄소 중립, 깨끗한 에너지, (태양광 패널) 생산->과다한 온실 가스 배출, 권장 도서: Shellenberger, *Apocalypse Never*(종말은 없다, 번역본 제목: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20. Revolutionary Bison(혁명가 들소), 평등을 위한 당연히 평화로운 혁명, 정부들이 행동하도록 압력을 넣자
21. Rightfielder Rhino(우익수 코뿔소), 깨끗한 정부 및 에너지, 2030년까지의 탄소 중립, 미래의 생명과 지능, 감정 및 의미 구하기에 대해 읽으십시오, 생존, 생명, 생존
22. Slugger Eagle(강타자 독수리), 우리는 재앙을 방지해야 한다, 2050년까지의 CO₂ 순배출 0, 자원 낭비 없기=>오염 축소, 탄소 중립, 전기를 아끼자, 아톰->파워, 지구를 위해 채소를 더 많이 먹자,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 삶, 기후 위기를 극복합시다
23. Ace Jaguar(에이스 재규어), 깨끗한 에너지, 더 많은 나무들, 생명, 생존
24. Centerfielder Cheetah(중견수 치타), 생명, 2030년까지의 CO₂ 순배출 0, 생존
25. Baserunner Sloth(주자 나무늘보), 생명, 2030년까지의 CO₂ 0
26. Slap Shooting Fennec Fox(슬랩 샷을 날리는 사막여우), 부유한 세상, 이웃 ♡, 뭐 새로운 거 없나? 최대한 빨리 모든 에너지원을 전력화하자. 우리는 왜 사는가? 모든 곳의 민주주의, 그렇다, 우린 할 수 있다! 삶
27. Big Tech is Watching You(거대 IT 기업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28. Don Quixote for Carbon Neutrality(탄소 중립을 지지하는 돈키호테), 2030년까지의 탄소 중립, 녹색 투표를 합시다
29. Saving Neverland(네버랜드 구하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2030년까지의 탄소 중립
30. Pinocchio(피노키오), 모든 것이 완벽히 괜찮다, 평등, 평화 및 정의. 지금 행동하자! 평화, 기후 재앙을 피하자, 기후를 위한 등고 거부
33. Resistance to COVID-19 in the Summer of 2020(2020년 여름의 코로나 19에 대한 저항)
48. Bodhidharma(달마대사), 바른 말
49. Robin Hood(로빈 후드), 대통령 당선인실, 세계 연방 정부, 국제지 2022.2.17., 애국적인 백만장자들- "드디어 정~세다!" 경제학자, 직원들이 회사를 소유 및 운영할 것을 권장하다, 개발도상국들 추가 댐 건설을 열망해, 세계 정부, 대통령 당선인 로빈 후드
50. Zhou Yu & Zhuge Liang's Nuclear Strategy(주유와 제갈량의 원자지계), 기후대전
53. Happy Tiger(행복한 호랑이), 인생을 즐기십시오. 행복한 2022년!

디자인, 번역 이한범

사진 김영태

저작권 2022년 이한범

Design, Translation by Han Lee

Photography by Kim Young-tae

Copyright 2022 Han Lee